

늪어가는 한국號... '집 유동화'로 베이비부머 노후안정

정부, 인구정책 TF결과 발표

국민 절반 이상 노후준비 안돼
가입연령·집값·요건 모두 낮춰

3억주택 보유 55세에 月46만원
주택 공시가격도 9억으로 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정부가 내놓은 노후 대비 자산 형성 방안은 먼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유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된 탓이다. 특히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보완해 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주택연금 가입률은 작년 기준 1.5%로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은 가입문턱을 대폭 낮췄다. 가입연령과 주택가격, 주택요건을 모두 낮췄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내려간다. 이미 퇴직했지만 마땅한 소득이 없는 베이비부머들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5세 가입자라면 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가 9억원이었던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 9억원으로 현실화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경우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배우자의 수급권도 강화했다. 유언 대응신탁 등을 활용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토록 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았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저조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에 그친다. 이와 함께 대부분 퇴직금 처럼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1.9%(계좌수 기준)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더 저조하다. 지난 2017년 기준 12.6%로 10명 중 한 명만 가입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발의돼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해 퇴직금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기존 퇴

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춘다. 수익률제고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금은 수수료가 수익률이 아닌 적립금 규모에 연동돼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서비스 수준이나 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퇴직급여법 개정안(김태년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개인연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의 만기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지금 연 1800만원인 연금계좌 불입한도에 ISA 만기 계좌금액이 더해지며, 300만원 한도로 추가 불입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린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된다. 단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고소득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1년 '주택연금 55세부터'서 계속

연금소득세율 퇴직소득세의 60%로 하향해 '세제 혜택'도

단 소유자가 병원, 요양(시설)소에 입원하거나, 자녀병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도입도 의무화한다.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1.9%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도입의무화 법안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금제도를 도입한다. 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청년층과 장년층이 연금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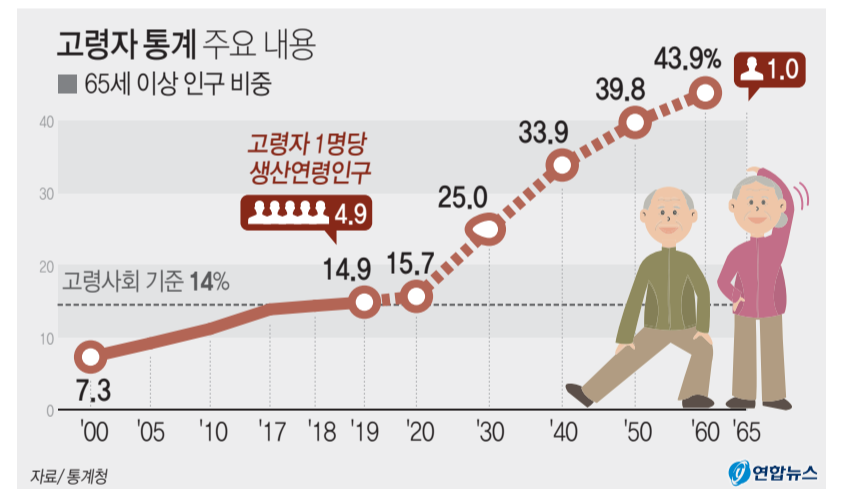
할 수 있도록 세대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청장년층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의 만기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 개인연금(IRP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 상품을 윈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주택연금으로 노후보장을 위한 자금이 창출될 수 있게 하고, 청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포스코,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인재 육성

호주 원료공급사 안콜과 협약 체결 연 10만 달러 규모 사회적펀드 운영

포스코가 글로벌 원료공급사와 매칭펀드를 조성해 인재육성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는 13일 호주 시드니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라인홀트 슈미트 안콜 CEO(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콜과 'GEM 매칭펀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EM은 '보석'이라는 사전적 의미 외에 기업시민 포스코가 사회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자(Go Extra Mile)는 뜻도 담고 있다.

세계 3위의 석탄공급사인 안콜은 포스코가 1981년 호주에 최초로 투자한 마운트 솔리 광산의 합작 파트너로, 포스코에는 2006년부터 안정적으로 양질의 석탄을 공급해 오고 있다.

포스코와 안콜은 1대1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매년 5만달러씩 출연해 10만달러를 조성 후, 양국에 1년씩 번갈아 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12일부터 1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40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차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포스코

원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지역 장학사업, 안전 및 환경 개선활동, 협력사 교육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에 사용돼 단순 기부활동과 차별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내년 첫해 사업으로 호주 원주민 후원단체인 클론타프 재단과 함께 원주민 취업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이 지원하는

학생중 일부를 선발해 1년 동안 채광, 광물이송 등 광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안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한국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은 향후 양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최정우 회장은 "원료공급사와 공동으로 GEM 매칭펀드를 통해 호주 지역 사회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공생까지 창출에 기여하고 안콜 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향후 해외 원료공급사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확대해 원료-철강 비즈니스 밸류체인내 이해관계자와 공생의 가치창출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최정우 회장은 12일부터 13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40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차회의에 한국 측 위원장으로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포스코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세계경제포럼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소개했으며,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는 한-호주 수소 에너지 비즈니스 협력에 대한 주제발표로 청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의 민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1979년에 설립된 단체로 연 1회 양국이 교차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 측 위원장은 2002년부터 포스코 회장이 맡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1년 '취업자 수 42만명'서 계속

실업자수 3년 만에 최저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41만 7000명), 50대(10만8000명), 20대(8만 7000명) 등에서 늘어난 반면 40대(-14만6천명)와 30대(-5만명)는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4.3%로 1.4%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줄어들며 8월(-27만5000명)과 9월(-14만명)에 이어 석달 연속 감소했다. 실업자수가 석달 연속 감소한 것은 2016년 5~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10월 기준으로 2013년(2.7%) 이후 최저다. 청년 실업률은 7.2%로 1.2%포인트 떨어졌다. 2012년 10월 6.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석대성 기자 bigstar@